

도민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활짝 열 것

지난 한 해 전북도정은 여러가지 난제 속 이차전지 특화 단지 지정,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이달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다. 올해는 전북 자치도의 원년을 선포하고,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김관영 도지사는 보고 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김관영 도지사의 향후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Q. 다시다난한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는?

- 도전하면 이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한 해였습니다. 파도가 크게 솟구치려면 거센 바람이 필요하듯이 더 큰 도약을 위한 난관과 위기를 만난 1년이기도 했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기업유치 10조원 돌파로 경제부흥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삭감이라는 쓰라린 아픔도 마주했습니다. 더 큰 성장을 위한 성장통의 시간을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힘차게 뛰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Q. 기억에 남는 굵직한 성과들을 꼽자면?

-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기업유치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IS그룹,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SK온), LG화학·중국화유코발트, 삼성전자 등 주요기업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임기 내에 계열사 포함 대기업 5곳을 유치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했습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700건이 넘는 기업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전북형 삼성스마트공장은 2026년까지 차례로 300개가 조성될 것입니다.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수소특화단지 등 첨단산업단지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리서가 이어지는 새만금 산단은 3·7공구 매립을 예정보다 1년 이상 앞당긴 작년 연말에 시작했습니다. 투자하고 싶은 기업인들을 위해서 1,406억원 규모의 전북-KDB 지역혁신 성장펀드를 비롯해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협치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이어 글로벌대학30 선정까지 교육부 3대 핵심사업에 모두 선정됐습니다. 만 3세에서 5세의 완전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실현했습니다.

협치의 힘이 가장 크게 발휘된 곳은 정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 100일만에 국회 통과되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리더와 CEO가 참가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도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가 성공했습니다. 여야의 구분을 넘어 전북을 위해 하나가 된 정치권과 늘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Q. 지난해 전북도정에서 아쉬운 점은?

- 새만금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업무의 책임 소재와 정치 진영을 떠나서 실망을 안겨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최지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사 초기 화장실 등 위생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부 부처와 도, 시군이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도민들도 현장에서 눈물겹게 헌신해주셨고 국민들도 아낌없이 도와주셨습니다.

현장 상황 개선과 잼버리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은 만족을 표했습니다. 저 또한 전북에서 마무리를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러나 결국 태풍 비상으로 새만금에서 행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 점도 대단히 아쉽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Q.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예산이 3,000억원 복원됐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 전액 복원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러나 정

상화를 위한 불씨는 최대한 지키고 살려냈습니다. 공항과 항만, 도로 등 SOC 예산을 포함해서 총 4,513억원의 새만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잼버리 파행 논란 이후 정부와 여권의 압박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내 정치권에서 삭감과 단식, 마라톤 투쟁 등을 통해 예산 복원을 바라는 도민의 열원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도민들께서도 한목소리로 예산 복원을 외쳐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말이면 2025년 국가예산 준비에 돌입합니다. '워룸(국가예산확보전략회의)'을 통해 부지사와 실국장들이 상주하며 국회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워룸'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다시 뛰겠습니다.

Q. 지난해 12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준비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 대회 준비를 이룰 조직 구성이 시급합니다. 유치까지는 도청 내 1개 팀이 전적으로 실무를 담당했지만, 이제는 실행단계인 만큼 추진단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필요한 자원과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불 켜 틈 없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에 열리는 국제행사입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낼 것입니다.

대회 주최기관이 재외동포청입니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한인 비즈니스 리더들의 네트워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의 협조 없이는 대회를 잘 치러낼 수 없습니다. 추진단이 구성되는대로 재외동포청과 함께 공식적인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대회에 참가할 각국의 한인 비즈니스 CEO들과 꾸준히 접촉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대회가 성공하려면 기반시설 준비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참가자와의 소통 등 모든 일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이뤄져야 합니다. 제가 직접 진두지휘하겠습니다. 대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전 과정을 일일이 챙길 생각입니다.

Q. 이차전지 기업 투자 유치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 민선8기 들어 전북에 투자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23곳입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액만 9조 원 이상입니다.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LG화학(화유코발트), IS(엘앤에프), SK온(GEM,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합작사, IS MNM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각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대우전자재료, 예코앤드림, 이디엘(엔켐 합작사)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기업들의 전북 투자 금액이 연평균 1조 원 수준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이차전지 기업들 사이에서 전북 투자의 붐(Boom)이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투자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협약이 제조 공장 건립과 일자리 창출 등 현실이 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전북에 투자한 기업들은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Q. 전북도가 목표로 하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요?

- 앞으로 10년 안에 '새만금' 하면 '이차전지'가 떠오르도록 새만금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10년 후인 2034년에는 기업유치 누적 100개, 고용창출 누적 1만명, 총매출



이차전지 특화 지정·기업유치 10조 돌파... 경제부흥 '청신호' 글로벌30 선정·만3~5세 무상보육 실현 등 교육협치도 성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100일 만에 국회 통과 기적 연출 올해 개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 성공 새만금 예산 전액 복원 못해 아쉬워... 정상화 불씨 최대한 살려 자치도 전부개정 조항, 공포 후 1년 뒤 시행... 준비과정 돌입

누적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한 동력이 최근 생겼습니다. 지난 연말 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 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될 때 새만금은 '광물 가공과 리사이클링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또, 리사이클링 분야의 선도기업인 성일하이텍이 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리튬과 흑연, 니켈을 비롯한 이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새만금에 보관하는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용 후 이차전지 센터 구축을 통해 재사용, 재활용 등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평가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고순도 리튬 회수를 위한 공정 개발과 함께, 환경 오염 저감을 위한 R&D 과제 발굴 등 사용 후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Q. 이차전지 기업들의 폐수처리 문제가 환경 오염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 지금 이 문제에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폐수에 들어 있는 이온성 화합물인 염 농도가 낮은 경우, 사업장에서 전(前)처리 후 군산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는 염농도가 높아서 기존 공공폐수처리장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에서 자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차전지 입주기업의 처리 시설과 방류물 인·허가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소재별로 폐수의 구성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새만금 입주기업 폐수 특성에 맞는 환경 오염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이차전지 기업들만을 위한 전용 공공폐수처리장 건립도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Q.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요?

- 출범 후에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명칭 변경입니다. 주민등록, 도로명과 같은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 시스템에서 대략 250억 건 정도의 방대한 코드가 변화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행정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감사위원회도 가동됩니다. 중앙감사의 과다·중복 감사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자치이념에 부합하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18일 출범일에 맞춰 도민들과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기념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원년을 선포하고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통과된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말에 통과된 전부개정안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진정한 비전과 미래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개정 조항들은 공포후 1년 후에 시행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특례 시행을 위한 준비 과정에 돌입해야 합니다. 전부개정 조항 하위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 시행령 6건, 조례 82건에 달하고, 수많은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도민들께서 체감 가능한 특별한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Q. 그렇다면 전부개정에 담긴 특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받은 조문이 131개, 특례는 333건에 달합니다. 전부개정에 담은 목표와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산업과 정책들을 시험하고 도전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 그리고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

의 역할을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국제케이팝학교 특례, 고령친화산업 육성,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 금융특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 등 전북이 장점이 있는 산업 특례를 반영했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수소, 이차전지 등 산업 특례와 새만금 고용특구, 대학 학생정원 조정·종합계획 수립 특례도 반영했습니다.

Q. 재정 특례와 관련된 사항들이 빠져있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요?

-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반영된 특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들이 제외됐지만 다행히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탄소소재인프라기, 바이오융합산업 진흥, 고령친화산업 등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조문들을 근거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재정 지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 운영 자율성 확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례와 같은 재정 지원을 인정받기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에도 공조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 재원 확보 수단으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국가공기업을 지정하면서 면세점 운영 등을 통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와 유사한 공기업 지정 방법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Q. 앞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 1월 18일이면, 128년 만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특별한 전북'이 시작됩니다.

우직한 사람이 심은 한 그루의 나무가 산을 물들이는 숲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 전북도는 나무를 심는 사람의 마음으로 특별한 전북을 향한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준비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해내야 할 일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책임의 무게는 더해지고 역할의 범위도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과 함께라면, 도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전북도는 어떤 일이든 할 것입니다.

특별한 전북의 주인은 바로 우리 도민 여러분입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바람을 담아 삼향식으로 이뤄낸 진정한 자치의 공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 도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가장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재훈 기자